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 여러분들께,

며칠 전부터 온도가 푹 떨어졌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도 영하의 날씨를
 경험하긴 했었지만 요즘처럼 영하
 10도가 훌쩍 넘는 날씨는 참
 오랫동안이어서 길을 걸을 때 컷볼이
 얼얼한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은것
 같습니다.^^

성탄이 불과 닷새 앞인데도 거리는 믿을
 수 없을만큼 조용하고 한가합니다. 지난
 8년간 두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탄을
 사역지에서 보낸 탓에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캐롤이 없는 풍경이 낯선것도
 아닌데 가족과의 모임마저 자제해야하는
 이번 성탄은 여러모로 참 낯설고
 어색합니다.

저는 대림절, Advent 에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처럼 대림절이 이토록 간절한
 기다림과 기대로 채워졌던 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이 어두움과 불확실의 터널 끝에 기어코
 무언가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지치고 무너진
 삶에 새로운 소망의 변곡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비록 매주일 대림절 초를 하나씩 켜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주일마다 하나씩이
 아니라 매일 매일 하나씩 초를 켜는
 심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한국이고, 저희의 비자
 상황에 아직은 특별한 긍정적인 싸인은
 없으며 사역지의 상황도 새로운 돌파의
 기운은 크게 없어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기도편지를 써야할 지
 몰라 편지를 드리는 것조차 망설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것만 같은 이 시간도 잠잠히
 주의깊게 들여보다 보면 매 순간 주님의
 섬세한 돌보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둘째 딸과 9학년이 끝난 이후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고,
 큰 딸은 판데믹이 시작되기 전 졸업과
 면허취득을 위한 과정을 다 마치고
 수련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사이 사교단체의 허입을 받고 내년 사역지로 나오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는 모교의 의료 사교원 및 전문인 사교단체와 더 긴밀히 연결되어 다양한 섬김과 도전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고, 벌써 두번째 암이 재발되어 쉽지 않은 항암치료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언니의 치료과정을 함께하며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온라인 화상미팅이라는 테크놀로지 덕분에 미국, 방글라데시, 인도, 한국등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과 다양한 모임으로 연결되어 물리적인 시공간을 뛰어 넘는 공동체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넘치도록 충분한^^ 여유시간 덕분에 많은 책을 읽으며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었고,

비록 직접 병원에서 환자를 보거나, 가르칠 수는 없지만 사역지의 주니어닥터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조언하고 격려하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나눈것은 극히 일부일 만큼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는지요.

결국 돌이켜보니 코로나가 저희 삶에서 근본적인 걸 바꾸어 놓은건 하나도 없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 되셔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저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고, 저희 또한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며 저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런 삶을 사는 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이 저희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부르심의 본질도 결코 변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감사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히 12:28)

2020 년의 성탄은 저희 모두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천년 전 어둡고 침울했던 유대 땅에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껏의 경험을 훌쩍 뛰어 넘는 깊은 신비 가운데 여러분과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삶을 새로운

생명으로 약속하게 하실것을 믿고
소망하며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탄, 복된 새해 되세요!

기도해 주세요!

1. 그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역지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아버지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섬기게 될지도
모르는 사역지의 상황 가운데 **스**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역의 패러다임을 잘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3. 큰 딸의 파송 준비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특별히 같이 기도의 짐을
지는 후원자들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